

《사기》조선열전을 통하여 본 만조선의 국력에 대한 이해

김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국주의사가들과 사대주의사가들이 써놓은 력사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김정일전집》 제2권 164~165페이지)

고조선의 세번째 왕조에 해당되는 만조선은 B.C.194년경 조선사람 만에 의하여 세워져 B.C.108년까지 존재한 독자적인 주권국가였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만조선은 후조선에 뒤이어 성립되어 건국초기부터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하고 한나라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강국으로서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떨치였다.

무엇보다먼저 《사기》조선열전에 반영된 만조선관계 기사를 분석하여보면 만조선의 정치적위력에 대하여 알수 있다.

만조선이 정치적위력이 강한 나라라는것은 당시 한나라의 침략적인 지배정책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주권국가였다는데 찾아볼수 있는데 이것은 만조선이 한나라와의 대외관계에서 취한 립장과 자세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만조선은 성립초기에 한나라와 평화적으로 대하면서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한나라는 B.C.206년 진나라가 패망한 후 지방봉건세력이였던 류방이 세운 중국의 통일적인 봉건국가였다. 만조선은 이러한 한나라와 성립초기부터 자기의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대외관계를 유지하였다.

《사기》조선열전에는 《마침 혜제(B.C.194~B.C.188)와 고후(B.C.187~B.C.180)때 천하를 처음으로 평정하자 료동태수는 만이 <지방관>이 되어 새박을 보호하고 오랑캐들이 도적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방의 모든 오랑캐군장들이 <천자>(한나라군주)를 만나려고 하는것을 금지하지 말것을 약속하였는데 <천자>가 듣고 그것을 허락하였다.》(《사기》권115 조선열전1)라고 기록하고있다. 여기서는 마치 만이 한나라의 《신하》가 되어 변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변 소국들과 종족 우두머리들의 국경통과를 금지하지 않게 할 그 어떤 《의무》를 지닌것처럼 씌여있으나 그것은 두나라가 변경에서 호상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외곡하여 쓴것이다.

만조선은 B.C.194년경에 만의 정변으로 후조선을 전복하고 세워진 왕조이다. 그러므로 초기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내정을 수습하고 완화하는 전략으로 이웃나라와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을것이다. 한편 한나라도 세워진지 얼마 안되는 조건에서 새로 선 만조선과의 관계를 안전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하였을것이다.* 이와 같은 리유들로부터 두나라는 호상관계에서 서로의 충돌을 피하고 호상존중, 호상협조라는 평화적인 립장과 자세로 나왔던것이다.

* 한 고후 8년(B.C.180년)에 한나라 진무의 고조선침략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통치배들의 의견상이와 시기상조론에 의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었다. 그 리유는 세워진지 얼마 안되는 한나라로서는 전쟁을 준비할 힘이 미약한데 있었던것이다.《사기》권25 료서3)

그후 만조선은 우거왕시기에 와서도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국가정치를 실시하였으며 날로 로골화되는 한나라의 지배책동과 내정간섭을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사기》조선열전에서는 만조선이 우거왕시기에 이르러 진반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천자》를 만나러

가는것을 가로막고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한나라에 당당히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렬전에는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왕시기에 이르러 유인해낸 한나라 망명자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다. (만조선은) <천자>에게 와서 보고하지 않고 진반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에게 뵙고저 하는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않게 하였다. 원봉2년 (B.C.109년)에 사신 섭하를 보내어 우거왕을 회유하였으나 우거왕은 <천자>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있다.

기록에서 보다싶이 만조선은 그 누구의 의도와 지배에 따라 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자적인 정책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만왕을 이어 손자인 우거왕시기에 와서도 그러한 정책은 계속 이어졌으며 한나라에 비굴하게 가붙는 동족의 나라들을 배격하였을뿐 아니라 한나라의 내정간섭행위를 단호히 물리쳤다.

만조선이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주권국가였다는것은 한나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웃나라들과 주동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놓고도 알수 있다.

기록에는 만조선이 군세와 재물을 얻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고을들을 종속시킨 사실을 전하고있다. 그러면서 전란에 허덕이던 한나라의 주민들도 많이 포섭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만조선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주동적으로 포섭할것은 포섭하고 무력으로 칠것은 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당당히 행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시 만조선의 대외적지위는 바로 한나라도 감히 무시 못할 정도로 높았다.

만조선이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주권국가였다는것은 한나라의 회유기만책동을 단호히 일축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건드린 섭하를 무자비하게 처단한 사건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만조선의 강력한 국력에 겁을 먹은 한나라통치배들은 만조선을 회유기만하기 위하여 섭하를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만조선은 한나라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일축하고 섭하를 쫓아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신 섭하는 한나라로 귀국하는 도중 패수가에서 전송나온 만조선의 비왕 장을 죽이고 도망쳤다. 섭하의 행위는 만조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인 동시에 자주권을 건드린 도발이었다. 이로부터 만조선은 단호한 조치로 한나라의 료동군을 습격하고 동부도위로 임명받은 섭하를 처단하는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 《사기》 권115 조선렬전에 의하면 한무제가 만조선의 비왕 장을 살해한 《공로》로 섭하를 료동동부도위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사기》의 주석에 인용된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료동동부도위의 소재지가 료동군 무차현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위는 진나라때에 있던 위를 한나라시기에 와서 도위로 고친것으로서 해당 고을의 군수를 보좌하여 군사관계와 지방행정사무를 맡아보던 벼슬이라고 한다.

이것은 만조선이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한 한나라의 도발에 대하여 응당한 반격을 가하였으며 대외관계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기》조선렬전에 반영된 만조선관계기사를 분석하여보면 만조선의 군사적위력에 대하여 알수 있다.

《사기》의 조선렬전에는 《만이 군사력과 재물을 얻어 주변의 작은 고을들을 침략하여 항복시켰으며 진반, 립둔이 모두 와서 복속되어 사방 수천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기록은 만조선이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소국들을 통합해나갔다는것을 보여주며 만

조선의 령토확장과정도 정치적위력과 함께 강력한 군사적힘이 동반되었음을 말하여준다.

만조선은 비왕 장을 살해한 섭하를 차단하기 위해 군사를 발동하여 룡동군 동부도위 소재지를 습격하였다. 한나라의 한개 지방행정단위인 룡동군을 습격하고 그 우두머리를 차단하자면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만조선의 군사력에 대하여 알수 있다.

한나라의 군주는 만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한나라의 우수한 장수들이라고 하는 양복과 순체를 앞세우고 죄인들까지 굶어모아 만조선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즉 한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만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던것이다.

당시 한나라의 군주 한무제는 자기의 통치년간에 북쪽으로는 흉노를 여러차례 반격하여 제압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월족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려 그를 정복하였다. 양복이나 순체와 같은 장수들도 모두 이러한 정복전쟁과정에 공로를 세운 장수들이라고 한다.

특히 양복은 한무제의 남월정복때 루선장군으로 된자로서 여러 전공을 세운것으로 《사기》에 기록되어있다.《《사기》 권113 남월위타렬전, 권122 양복렬전)

이렇게 놓고볼 때 만조선침략에 동원된 한나라의 군주와 장수들, 군사는 저들이 이룩한 공로로 하여 기고만장할만도 한 대적이었던것이다. 그러나 모든 력사적사실은 이러한 대적과 맞다든 만조선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만약 만조선의 군사적힘이 약하였다면 군사를 파견하여 룡동동부도위인 섭하를 죽일수 없었을것이며 한나라도 군사적힘을 총발동하여 만조선을 공격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더우기는 한나라군주가 구태여 죄인들까지 모아 만조선을 공격하지 않았을것이다.

만조선의 군사적위력은 고조선-한전쟁과정에 더욱 뚜렷이 발휘되었다.

전쟁과정에서 나타난 만조선의 군사적위력은 적들의 엄청난 침략무력을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를 거둬한데서 나타났다.

전쟁초기 만조선은 루선장군과 좌장군의 수만대군을 쳐물리침으로써 적들의 침략기도를 좌절시키고 전쟁형세를 만조선에 유리하게 역전시켰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루선장군은 많은 군사를 잃고 10여일동안이나 산중에 숨어살았고 좌장군은 화가 나서 패전장수였던 졸정 다를 목잘라버렸다.

전쟁의 다음단계에서도 좌장군은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직접 만조선의 패수 서군을 공격하였지만 패배를 당하였다. 이때부터 전쟁형세는 적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대치상태에 있게 되었다. 적들속에서도 《싸움에서 곤욕을 치른 패전한 군사들이라 모두 싸움을 두려워하고 <루선>장군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아우성을 쳤다.

전쟁과정에서 나타난 만조선의 군사적위력은 적들의 약점을 간파하고 전쟁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한 전술들을 세운데서도 나타났다.

련속적인 패전에 위압을 느낀 한무제는 무력으로써는 만조선을 깨뜨릴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사신을 보내어 회유기만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만조선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적들을 혼란시키고 궁극에 가서는 소탕해버리기 위한 전술을 세웠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침략군의 사기가 저락되고 혼란된 틈을 리용하여 거짓항복하는체 함으로써 적들끼리 리간시키고 서로 맞불질을 하도록 하는 전술이었다.

만조선이 루선군에 항복하는체 하며 좌장군을 고립시키고 한편으로는 루선군과 련합하여 좌장군을 치려고 한것은 그의 뚜렷한 실책이다. 이것은 적아간의 력량과 군사적대치상태, 적장들의 허점을 간파한 만조선의 적중한 전술이었던것이었다.

《사기》조선열전에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조선대신들은 몰래 사람을 보내 사사로이 루션에게 <항복>을 약속하였으나 말만 오고갈뿐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좌장군은 여러차례 루션과 싸울 시기를 정하였으나 루션은 도리어 화해할 약속만을 생각하면서 싸움에 나가지 않았다. 좌장군 또한 사람을 보내 조선이 항복할 때를 기다렸으나 조선은 이에 대하여 반기지 않고 루션쪽에 마음을 두고있었다. 그로 인해 두 장군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좌장군은 속으로 <루션은 전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는데다 지금은 조선과 사사로이 잘 지내고있고 또 조선은 항복하지 않고있으니 반계(배반하려는 계획을 이르는 말)가 있는것이 아닌가?>고 의심하였다.》

좌장군은 사신 공손수와 함께 한나라군주의 명령으로 루션을 불러들여 체포하고 그의 군대를 무력으로 통합해버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만조선이 리용한 전술에 의하여 걸려든 적들의 혼란상태를 보여준다.

한나라와의 대결과 전쟁과정에서 발휘된 만조선의 군사적위력은 그를 물질기술적으로 안받침해준 경제적잠재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러한 사실은 전쟁초기 만조선과 한나라측과의 담판시에 태자가 많은 군마와 군량, 무기를 가지고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때 만조선의 태자는 말 5천필과 많은 군량을 가지고 만여명의 무장한 사람들의 호위속에 강화담판에 나갔다고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좌장군과 루션장군이 왕검성을 포위하였는데도 우거왕이 수개월동안이나 성을 지켜 함락할수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왕검성이 지형학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군사기술적으로 완비된 요새였다는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왕검성이 적들의 포위속에서도 수개월간 견지할수 있는 군량과 무기를 비롯하여 전략물자를 충분히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만조선의 군사적위력을 안받침한 경제적잠재력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조선은 성립초기 앞서 물려받은 후조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한나라와 주변국가들과의 무역을 중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해나갔다고 볼수 있다. 《사기》조선열전을 분석하여보면 처음에 만조선은 한나라와 평화적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나라와 주변 여러 나라들사이에 대외관계와 무역 등의 경제관계를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진다.

여기로부터 만조선은 경제적잠재력을 확보하고 그를 기초로 경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갔다고 보게 된다.

만조선이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이 한나라의 침략에 의한것이 아니라 만조선의 일부 대신들의 투항변절에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만조선이 강한 국력을 객관적으로 반증해준다. 이미 알려지다싶이 고조선-한전쟁이후 전쟁에 동원되어 침략군을 지휘하였던 적장들은 목이 잘리거나 서민으로 되었으며 그와 반대로 투항변절한 만조선의 대신들은 《공로》로 하여 한나라로부터 후작의 벼슬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고조선의 멸망이 결코 한나라의 군사력에 의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립증하여준다.

이와 같이 만조선은 정치, 군사적으로 위력한 강한 국력을 가진 동방의 강대국이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반동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되고 말살된 력사적사실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바로 해명하여야 할것이다.